

불교계, 왜 이라크 파병 반대하나

이라크 파병,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파병을 반대하는 진보단체와 찬성입장의 보수단체들은 연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국민 여론도 양분되면서 국론 분열양상으로까지 치달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라크 파병 논란을 '실리'와 '명분'의 길등으로 이해

한다. 소위 '국익'이라는 것과 '전쟁반대' 논리가 맞서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두 명제는 양극단에서 있으면서도,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둘'이 될 수 없는 명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왜 방법은 다른 것일까.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을 위한 선택인가.

“폭력은 또다른 폭력의 씨앗”



◁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는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하며 10월 20일부터 광주 YMCA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파병 논란의 초점

정부는 10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이라크 추가 파병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 재건 지원을 위해 국군의 추가파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알려진 대로 △한미동맹관계 △북한 핵문제 △경제문제 등 중차대한 현안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파병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꼴이 되고 △아랍권을 적으로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고 △파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인적 피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다시 말해 파병 반대론 역시 '평화'라는 명분 외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 종교계 반응

반전평화불교대책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좋은 벗들,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외국인노동자문화센터 등 불

국익 도움보다는 침략 전쟁 부담만

비폭력·불살생의 평화관에 배치

가톨릭·상당수 개신교 단체도 “반인륜” 한목소리

교계의 진보단체들은 정부 결정 직후 일제히 파병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침략전쟁에 대한 부담을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는 미국의 태도에 정부가 동조하는 것은 우리의 주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며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정토회 지도법사 범문스님은 20일 발표한 ‘이라크 파병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에서 “이프가나스탄과 이라크에서 구호활동을 한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이번 파병 결정은 명분과 실리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전평화불교대책위는 불자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파병 반대운동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가파병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조계종 중앙

종회는 지난 3월 파병논란 때 이미 반대외사를 밝힌 적이 있으며, 대부분의 불교단체들도 이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불살생을 제1의 계율로 여기는 불교가 파병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에는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단체들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30여개 가톨릭단체로 이뤄진 이라크파병 반대 천주교연대는 “추가 파병은 국익이라는 미명아래 우리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반인륜적 행위로 인류역사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파병을 반대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KNCC)인권위원회 등 40여개 개신교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기독교연대도 “미국의 전후 처리에 동원되는 추가파병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개신교계의 보수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한국의 국익과 이라크 질서유지, 평화정착에 기여할 추가파병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불교적 관점에서 본 파병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광경>에 보면 “이의를 얻으려는 모진 마음 때문에 나라의 사명을 받들고 군대에서 화합하고, 군대를 일으켜 서로 무량한 중생을 죽이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즉, 군대를 일으켜 살상을 해서도, 이의를 얻기 위해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거나 협조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 경전말씀에 근거하면 불교가 왜 파병 결정에 반대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물론 불가피한 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방어적인 측면에서만 군대를 움직이며, 그 움직인 또한 칼과 무기를 버리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이 방어적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며, 비폭력과 불살생을 강조하는 ‘불교의 평화관’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불교가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보다 명확해진다.

불교가 파병에 반대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전쟁이나 전쟁에 동조하는 것으로는 인류 행복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불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연기(緣起)’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게 된다’는 법칙이다. 모든 것이 서로 연관돼 있으므로 폭력(전쟁)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되며, 그 폭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에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한명영 기자 mwahm@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구장현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자원봉사자

내 삶의 스승

이성·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 늘 곁에서 나를 일깨워주는 작은 도반

어느덧 32살의 나이가 되었다. 32년을 살며, 난 불교라는 이름과 함께 살았고, 또 그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진각종의 신촌심인당(현 혜원심인당)과 그곳에서의 학생회 활동은 지금의 나를 있게끔한 소중한 인연을 주었다. 도량에서 따뜻한 법우들과 함께 자라고 수행하면서 아픈 기억을 추억으로 여기고, 잃어버린 꿈을 미래의 희망으로 일구며 사는 법을 배웠다.

이 모두는 훌륭한 스승님과 선배들의 복된 인연이었음에 그 인연에 항상 감사하고, 잊지 않기 위한 작은 노력속에 지금껏 살고 있다.

난 명예나 재산, 흔히 말하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저 작은 바람이 있다면 항상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작은 기회가 되어주며, 누군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복된 인연의 작은 기억으로 남아주고 싶을 뿐이다. 생각해보면 물론 작은 꿈만은 아닌 것이기도 하다.

아무튼 그런 점에서 탐주심인당과 서울학생회 지도법사활동은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된다. 그곳 청소년들과 함께하며, 난 사랑과 이해라는 의미를 그들로부터 배웠다.

끈끈한 만남과 서로간의 믿음은 항상 날 퇴근 이후의 시간을 그곳에서 머무르게 했고, 아이들 역시 하교시간 이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못했다. 정말 또 다른 가족이었다.

난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생각을 통해 인생을 배웠고, 냉정한 현실과 잘못된 세상의 인과로 인해 상처받은 그들을 보며, 자지만 책임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의식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대해 명확한 주관과 책임의

식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체계적으로 내놓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렇게 노력하던 세월이 지나 이제 그들은 어느덧 자라 나와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고강하는 어른이 되어 늘 내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결같이 서원하던 진각종 산하 청소년법인에서 함께 보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은 아프고 고민한다. 이성문제에 힘들고, 미래의 꿈과 성적문제로 힘들며, 멀어지는 부모님과 문제로 고민한다. 그러나 이들이 정작 아픈 이유는 사회속의 주변대상으로부터 늘 무시당하는 것이다.

아침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과도하고 속박하는 시간의 연속은 경쟁사회의 생존이라는 이름에 무시당하고, 순수하고 맑은 청소년기의 이성적 사랑은 파괴와 타락을 거듭하는 사회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문제는 정책의 수립과 환경 개선을 목표로 사업을 설정한 시점에는 이미 늦는다. 그들의 문제는 항상 돌발적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이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거듭되기 때문이다.

동등한 시각과 입장에서 포용하고, 청소년을 상업적 대상으로 보호하는 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는 청소년사업을 포괄적·목적적·오만 전제해서는 안된다. 청소년에 대한 미래관과 구체적 희생 없이 수적인 팽창만을 바란다면 그들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공간에서 마저 소외될 것이기 때문이다. 난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 늘 내 곁에는 나를 일깨우고 채워주는 작은 도반이 있기 때문이다.

고등역술 육임(六壬) 수강생 모집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효사숙」 제 7기 ● 한국육임학회 홈페이지 : www.taotemple.net

- 六壬학당 「효사숙」 제 7기 육임학 수강생을 모집 합니다.
- 학습기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시간씩 3개월 13주 52시간 이며 음양오행의 기초를 모르는 분들은 본 강의 전 2시간에 걸쳐 사전 교습 받게 됩니다.
- 六壬은 사람의 일(人事)을 밝히는 데는 따를 학문이 없다고 하여 옛부터 오술지중 제왕(五術之中帝王)이요, 신시(神示)라고 했습니다.
- 오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했지만 워낙 난해하여 포기하기 일췌였습니다.
- 방문(전화)은 시간만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로 왔는지?',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현재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등 20여가지 사항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해주게 되는 최고 제일의 고등한 오행술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긴 운로(運路)를 따지는 데는 사주(四柱)만한 학문이 없습니다만 당장의 절박한 길흉성부(吉凶成否)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군더더기 없이 판단하는 데는 六壬을 능가할 학문이 없습니다. 사주는 농경사회의 정서에 부합되는 구조이고, 六壬은 치열한 이 시대의 다양한 의식사상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활인천역의 공부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적 가치가 중요함입니다.
- 문제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거의 전부가 먼 훗날의 일을 물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당면사가 될 지 안될지 합치 말지 등의 길흉을 물으러 온다는 데 있습니다. 좀더 확실치 말하지만 사주공부 10년을 해도 긴급(緊急)한 목전사(目前事)를 딱 딱 부러뜨릴 수 있기가 힘듭니다. 사주명리학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임에서의 이런 것들은 기본차원이어서 쉽고 분명하며 정확합니다.
- 또한 맞은 몇일 몇시에 누가 무엇 때문에 올 것이며 그 일이 어떻게 전개 될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갖지하여 미리 밝혀 놓을 수 있기도 합니다.
- 나아가, 꼬이는 일과 질병에 관련하여 지금 어떤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지금 무슨 부정밀기가 들었는지, 지금 누구의 산소에서 태어났는지 등을 정확히 먼저 지적하고 그 해소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은 오랜 六壬術을 통해 검증되어 있는 六壬만의 영험입니다.六壬에서는 이를 「형이상법」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六壬을 공부하면 기허 오행(五行)을 완성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문(漢文)을 몰라도 되고, 오행의 기초를 몰라도 오행의 정점을 크게 습득·활용하게 됩니다.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육임학당 「효사숙」강주 曉史선생께서는 「육임개정비법」, 「육임개정비법수정본원본」, 「육임운명 판단법」, 「육임비묘형이상법」, 「육임비묘오강의」, 「육임개정비법CD」, 「육임신수비결」, 「육임개정비법 휴대용」, 「태유일」, 「사선택 분민비법」, 「육임개정비법 日講版」 등 12권의 육임서를 저술하여 그동안 비선(秘線)으로만 전달, 우리 활인천역자들의 실력을 크게 고양시킨 분으로서 3년전부터 육임강의를 시작하여 전국에 육임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 이 시대는 六壬이 절실한 시대요 선견지명(先見之明)을 직설(直舌)하는 六壬家를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여러분의 인생 대 전기를 위해 여러분을 「효사숙」제 7기로 초대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여 알려 드리오니 선의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1. 육임 「지두법」과 「길흉속지법」 몇가지를 가르치는 것으로 간판을 달게 해 준다고 사칭하여 300만원씩을 받고 있는 행위
2.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육임을 신중하게 가르쳐 주겠다고 수백만원에서 부터 1천여만원을 요구하는 행위
3. 육임서적 구입자 명단을 갖고 신상 정보를 사전 파악한 후 찾아가 잘 맞추는 것처럼 현혹시키고 출처불명의 책자를 파는 행위
4. 육임 단식법 몇가지를 알아 선성으로 자처하며 사람을 모으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효사숙」의 「부산속」 「대구속」 「광주속」 「전주속」 「인천속」 「강남속」 (비구니 스님들께서만 수강) 외에는 제가 강의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육임개정비법을 낸 3년전 초창기 및 모르고 「책 설명 강의」를 좀 했었는데 저로인해 이처럼 큰 해악들이 있게 되버려 전국에 계시는 현인 기사 이인 각 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걸 수강합니다. 늦게나마 사죄 드리오니 해악 하시지 바랍니다. 효사 배상.



- 강 사: 鼓卜子 曉史
- 강의시각: 11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기초 교습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 등록마감: 10월 31까지 방문, 입금 하신 분
- 정 원: 30분
- 등록비: 일백 오십만원
- 교 재: 효사육임학의목소(학습서) · 下(활용서) 값 410,000, 무료증정(본회 학습교재)
- 장 소: 슈유리 강북구청 원곡역 일심건물 4층 「육임학당 효사숙」 (4호선 수유역 8분출구)
- 특 전: 수료후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실기 강의」를 지속적으로 무료 수강하게 됩니다.

● 육임학당 「효사숙」 外 曉史선생 전국 육임 直講 일정 ●

■ 서울 매주 금요일 「효사숙」 02-993-8680 ■ 서울강남 매주 토요일 「강남속」 02-996-3335 ■ 전주 매주 일요일 「전주속」 063-284-7714 ■ 광주 매주 월요일 「광주속」 062-224-8680 ■ 진주 매주 화요일 「진주속」 055-755-1644 ■ 부산 매주 수요일 「부산속」 051-756-0141 ■ 대구 매주 목요일 「대구속」 053-624-8680 ■ 대구 금요일 오후 1시에는 육임학당 「효사숙」에서 본회 회원 실기 지도강의가 본 강의 전에 열리고 있습니다.

● 문의 02-993-8680 / 02-998-8683 담당: 정 주연 사무국장 ● 입금계좌: 우리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